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 석사학위 논문

소아 치료 분야에서  
동물매개치료 도입의 필요성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응 종

소아 치료 분야에서  
동물매개치료 도입의 필요성

지도교수 배 기 수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응 종

이 응 종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배기수 인

심 사 위 원 조선미 인

심 사 위 원 손영배 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20년 7월 17일

## 감사의 글

저는 다양한 반려견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견, 경비견, 호신견, 도그쇼견, 독스포츠견 등의 행동분석교정 활동을 30여 년간 벌여왔습니다. 반려견 교육분야의 선구자인 동시에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정도 받았지만 항상 저에게는 더욱 새로운 분야에 정진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있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동물매개치료라는 분야였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매개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비스대상자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얻는 혜택과 배움이 컸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동물매개치료를 위한 전문가 양성과 다양한 분야가 정착이 되어 의학과 접목 또는 대안의료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매개치료의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 있으며 그 활용 분야와 깊이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동물매개 치료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최고결정 위치에 있는 의료계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환영받지 못하고 보편화되지 못한 채 뒤처져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반려견을 지원한 장애아동 교육 현장을 찾아와 서비스제공자와 아동 사이에 교감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한 배기수 교수께서, 매개동물치료 서비스의 국내 확산 및 정착을 위하여 잘 교육된 매개견과 동물매개치료사의 양성이 필요하며, 의료계의 이해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에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저의 전공과 다른 의학 분야로 석사과정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전공 석사과정을 공부하느라 그동안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함께했던 아동과 부모님들의 감동과 격려를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동물매개치료 분야의 기틀을 잡는데 도움

이 되고자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제가 방송이나 세미나, 학교생활 등으로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이유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깊이 배려를 해주고 기다려 주시며 연구활동의 기틀을 잡아주신 배기수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평상시 격무는 물론 코로나19 감염의 유행으로 더더욱 힘드신 중에도 좋은 연구를 위하여 세세하게 지도해주신 조선미 교수님, 손영배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종 배상



# 국문 요약

## 소아 치료 분야에서 동물매개치료 도입의 필요성

급속한 산업의 성장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랜 기간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로가 되어주던 반려견의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가 애완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반려견은 애완동물 기능 이외에도 사람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 매개견치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동물매개 치료활동 및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매개견 활용 활동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적인 치료보조요법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질병 분야에 특화된 매개동물을 적용하려는 방식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분야별 매개동물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동물매개치료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한 어떠한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의 다양성에 따른 효과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선진외국에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매개동물 적용 대상의 연령범위가 넓었고 그 대상 질환 및 조건도 치매, 자폐증, 아동학대, 학습곤란, 청력저하, 시력저하 등으로 다양하였다. 또한, 장애나 생활적응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다양한 매개동물 지원서비스가 매우 다양하게 사회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매개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의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시스템 안으로 녹아있지는 있지 않았다.

이처럼 국내 매개동물치료 보급이 낮은 이유는 첫째,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관장하는 의료계의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무관심, 둘째, 환자의 편에서 최상의

치료법을 선택하여 제공하기 어려운 저수가 의료보험제도, 셋째, 엄격한 교육을 받은 동물매개치료사의 부족, 넷째, 훈련된 양질의 치료동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난치성 질환자, 임종 말기 통증 환자, 사회적응이 어려운 사람, 특히 소통 및 협조의 어려움이 큰 난치병을 앓거나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동물매개치료 요법의 국내 확산을 위하여, 의료계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의료보험급여항목 치료법으로 등재 시키는 노력은 물론, 새로운 적용분야 확장과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동물매개치료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제어:** 동물매개치료, 매개견, 난치성 질환, 소아



# 차례 (Contents)

I. 서론 (Introduction)	1
A. 연구가 필요한 배경	1
1. 용어의 정의	1
2. 동물매개치료 요법의 발전 역사	2
3. 동물매개치료의 생리학적 기전	3
4. 동물매개치료의 의료적 활용	4
5. 소아에서의 동물매개치료 도입의 필요성	5
B. 동물매개치료의 검증된 적용 분야	5
1. 인지 재활 치료	5
2. 협조가 어려운 소아의 치료	6
3. 교도소 수감자의 교화 활동	6
4. 요양원 생활자의 활동 진작	7
C. 동물매개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	7
1. 보조견 치료법 (Canine-assisted therapy)	8
2. 보조마 치료법 (Equine-assisted therapy)	9
D. 연구의 목적	9
1. 연구 목적	9
2. 의료계의 협력 도출 필요	10
II. 연구방법 (Materials and Methods)	12
III. 결과 (Results)	13

A. 의학 영역에서 치료전 개입의 이점 .....	13
B. 매개견치료 정착을 위한 노력 .....	13
1. 외국의 매개견치료 활동 상황 .....	13
2. 국내의 매개견치료 활동 상황 .....	15
C. 아동에서 매개견치료가 효과적인 적용 분야 .....	20
1. 완화치료 (Palliative treatment) .....	20
2. 장애아동에서의 적용 (Disabled children) .....	21
3. 학교생활 적응 (Adaptation to school life) .....	21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	21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22
6.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	24
7.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	25
8. 아동학대 (Child abuse) .....	25
D. 치료보조건의 자격 .....	26
1. 치료보조건이 되기 위한 충족 기준 .....	26
2. 치료보조건의 훈련 .....	27
3. 치료보조건의 분류 .....	29
IV. 고찰 (Discussion) .....	30
A. 국내 동물매개치료 활동의 현주소 .....	30
B. 국내 동물매개치료 연구조사 활동 .....	31
1. 국내 동물매개치료 연구보고 현황 .....	31
2. 동물매개치료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전망 .....	31
C. 의료계 협력 도출을 통한 동물매개치료의 확산 .....	32

1. 대한민국에서 동물매개치료의 의학적 적용에 대한 전망 .....	32
2. 동물매개치료의 의학적 적용을 위한 노력 .....	32
3. 동물매개치료의 사회 기여 전망 .....	33
D. 본 연구조사의 제한점 및 교훈 .....	34
1. 연구자 개인 활동에 대한 소회 .....	34
2.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 .....	35
V. 결론 (Conclusion) .....	37
참고문헌 (Reference) .....	38
그림 및 표 (Figure and Table)	
그림 1. 둥글개 봉사단의 주요 활동 .....	18
영문 초록 (Abstract) .....	45

# I. 서론

## A. 연구가 필요한 배경

### 1. 용어의 정의

인간과 동물이 연관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간에 유익한 성과를 거두려는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동물매개요법(Animal Assisted Interventions, AAI)과 동물매개활동(Animal Assisted Activity, AAA)으로 나누며, AAI는 의도된 목적에 따라서 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Therapy, AAT), 동물매개교육(Animal Assisted Education, AAE)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동물 반응을 연구하는 연구 단체들의 국제연합체인 IAHAI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s)가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3]

(A) 동물매개요법(Animal Assisted Interventions, AAI) : 건강, 교육, 사회사업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지휘되고 전달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되고 구조화된 치료개입(therapeutic intervention)을 지칭한다. 동물매개요법은 동물매개치료나 동물매개교육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공식적인 대인 서비스 활동을 위하여 인간-동물 팀을 조성해 치료개입을 진행을 한다.

(1) 동물매개치료(Animal Assisted Therapy, AAT) : 동물매개치료는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건강, 교육, 사회사업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에 의해 지휘되고 전달되는 계획되고 구조화된 치료개입을 말한다. 매개치료의 진도가 측정되고 전문기록으로 남겨진다. AAT는 공식적으로 훈련받아 유효한 면허나 학위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지휘되고 전달되는데, 주요 목적은 치료대상자의 육체적, 인지적, 행동적 또는 사회-감정 기능화 등에 있다.

(2) 동물매개교육(Animal Assisted Education, AAE) : 동물매개교육은 동물매개교육학 (Animal Assisted Pedagogy)이라고도 칭하는데, 의도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건강, 교육, 사회사업 등을 담당하는 전문가에 의해 지휘되고 전달되는 계획되고 구조화된 치료개입을 말한다. AAE는 학위를 받아 자격을 갖춘 일반 또는 특수 교사에 의해 시행되는데, 해당 교사는 관련 동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학교 교사에 의해 애완동물을 소유할 자격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방문 등이 그러한 사례이며, 이것이 특수학교 교사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도 목적을 가진 치료개입이 된다. 동물매개교육은 학술적 목적, 사회 준비 기술, 인지 기능화 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B) 동물매개활동(Animal Assisted Activities, AAA) : 동물매개활동은 전문가가 개입된 동물매개치료나 동물매개교육과는 달리, 동기 제공,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동물 팀(Handler-Animal Team)의 자발봉사 차원에서 별이는 비공식적인 개입이나 방문을 지칭하며, 개입을 통한 치료의 목적은 전혀 없다. 동물매개활동은 건강, 교육, 사회사업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개인에 의하여 시행되지만, AAA를 시행하고자 하는 인간-동물 팀의 경우 비공식적인 방문일 경우라도 기초적인 훈련, 준비, 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놓은 상태라야 그 실시가 가능하다. 물론 인간-동물 팀은 공식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대인 서비스 담당 전문가와 협업도 할 수 있다. 외상·위기·재난 생존자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동물매개 위기대응’이나 지원동물과 함께 요양원을 찾아가 별이는 ‘만나서 인사 나누기’ 등이 AAA의 좋은 사례다. [4] [5] [6] [7]

## 2. 동물매개치료 요법의 발전 역사

인간은 동물과 함께 수천 년간을 생활하며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동물을 적응시켜왔다. 그 가장 오래된 증거로 1976년 북부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 Simon Davis가 1만2천 년 전 인간의 무덤에서 강아지를 안은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인간과 동물의 정서적 유대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Morrison은 2007년 동물이 매개된 활동에 대한 역사를 고찰하고 동물매개요법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AAI)을 정의하였다. [9] 대략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1790년대에 영국의 요크(York)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토끼와 닭을 키우게 하여 환자들 치료에 활용하였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동물매개치료 활동의 시초라 할 수 있으며, 1830년 영국의 자선사업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동물 키우기를 권장하였고, 1867년 독일에서 뇌전증(epilepsy) 환자에게 말(horse)을 활용하였으며, 1942년 뉴욕 소재 미육군항공단 병원에서 환자가 농장동물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고, 이후 1944 사회학자 James Bossad가 ‘개소유와 정신 건강’이라는 저서를 통해 애완견과 소유자의 유익한 관계를 기술하였다. 1962년 심리학자 Borris Levinson은 자신의 개를 청소년 치료에 투입을 시킨 뒤 그 결과를 ‘The Dog as the Co-therapist’라는 책을 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소아정신병원 방문견 프로그램이 정착견 활동으로 변환이 되었고, 정신과 환자에게 애완동물 처방이 개시되었으며, 수의사가 요양병원에서 ‘ustad Buddies’라는 동물매개치료를 시작했다. 또한 Boris Levinson은 뉴욕의 심리치료사 중 3분의 1이 애완동물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음을 1972년 발표하였다. 1973 Humane Society에서는 ‘Petmobile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원에 동물이 방문하는 활동을 폈으며, 1977 Dean Katcher와 Erika Friedmann은 애완동물이 사람의 혈압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인간-동물 관계에 집중하는 단체로 1976년 국제치료견협회(TDI, Therapy Dogs International), 1980년 비영리단체 델타 소사이어티(Delta Society)가 설립되었고, 1990년 국제 인간-동물 상호작용 연구기관 연합(IAHAIO) 등이 발족되어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출판 등의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9]

### 3. 동물매개치료의 생리학적 기전

Wilson은 생체친화성가설(biophilia hypothesis)을 통하여 인간의 동물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생기게 된 유래가, 안전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동물이 보여주

는 신호에 의존했을 경우 인간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생체친화성가설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동물을 볼 경우,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 안보 및 웰빙의 느낌을 줌으로써 인간 개인에게 변화와 치유가 가능한 편안한 상태가 제공된다는 주장이다. [10]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신경전달물질들은 동물과 15분 이상 상호 작용할 경우에 체내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조견의 후각능력을 통한 거울 뉴런 활동 (mirror neuron activity) 및 질병 감지 능력 등도 인간치료 분야에서 동물매개치료가 차지하는 중요 역할 부문이 되고 있다. [11] [12]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AT의 대표적 유형은 보조견요법(canine-assisted therapy) 및 보조마요법(equine-assisted therapy)이다. 많은 연구에서 매개동물 치료에 참가하였던 환자들에게 교육 및 동기부여의 효과가 있었음이 증명되었으며, 주관적 자기평가척도의 향상 이외에도 혈압, 호르몬 수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생리적 척도에 있어서도 AAT의 효과가 긍정적이라 보고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 [1] [12]

#### 4. 동물매개치료의 의료적 활용

동물은 교도소, 요양원, 정신 기관, 가정 등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가정환경이나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AAT에는 다양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보조견은 사람의 특정 생활 활동을 도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집 밖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위치를 안내해줄 수도 있다. [13] [14] [15] [16]

다른 모든 치료적 개입(intervention)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으면 시행 프로그램의 결과가 효과적이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포함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양하다. 한편 애완동물이 정신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이롭게 작용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대상자에게 적합한 동물매개

요법의 종류를 결정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간-동물 간 관계 작용의 특성과 범위를 파악하여 애완동물, 정서지원 동물, 서비스 동물, 매개치료 동물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17]

## 5. 소아에서의 동물매개치료 도입의 필요성

최근 수십 년 동안, 보건 및 교육 분야의 연구에서 동물매개치료가 사회적, 심리적, 생리적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매개견 자체가 회복과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여 AAT의 효과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AAT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치매 등에 유익하다는 인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2]

특히 소아에서는 치료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료와 관리에 어려움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동물을 매개할 경우 아동 환자의 긴장이 완화되고 치료자의 지시에 순응하는 정도가 개선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많은 경험이 축적된 선진국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매개동물치료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유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 이에 소아 난치성 질환에서 아동 환자의 상태 호전은 물론 가족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동물매개 치료의 국내 도입과 확산이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 B. 동물매개치료의 검증된 적용 분야

### 1. 인지 재활 치료

후천성 뇌손상으로 인지장애가 생긴 사람들은 재활치료 계획의 일부로 매개동물치료(AAT)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 [18] 애완동물은 아동에서도 친밀감을 증진시켜준다. 또한 AAT는 치매 환자가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기억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억을 상기시켜 감정표현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지 자극을 촉진해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개견을 사용한 동물보조요법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Cohen-Mansfield Agitation Inventory (CMAI) 상에



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향상된다고 보고했다. [57] 또한 2019년에 시행된 체계적 분석에서 AAT가 치매환자의 우울 증상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19] [20]

## 2. 협조가 어려운 소아의 치료

동물매개치료 전문가는 아동이 동물과 접촉하는 도중 나타나는 행동 모니터링, 목소리 톤, 간접 인터뷰 등과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는데 독립적으로나 또는 기존치료의 보조요법으로 AAT를 사용한다. [21] 매개동물은 다양한 상황이나 고통에 대해 주의를 분산시키게 만드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아동에게 행복감, 즐거움 및 쾌락감 등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동물은 어린이의 기분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면서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22] 가장 보편적 연구들의 공통적 결과는 AAT요법이 소아집단에서 불안과 고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치료견은 소아 완화치료 분야에서도 환아에게 편안함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모두 위안감을 증진 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3]

## 3. 교도소 수감자의 교화 활동

구금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 요법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수감자 및 직원의 민감한 내용이 있기에 자세한 조사가 불가하여 적절한 분석과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동물 지원 프로그램이 교도소 수감자와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4] [25] 그러나 ‘성향 점수 감시 (Propensity Score Watching)’를 통하여 ‘교도소 동물프로그램 (Prison Animal Programs, PAP)’의 효과를 측정하였을 때, 동물매개활동이 수감자들의 심각한 위반이나 폭력적 위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범죄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범률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의 구직률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재통합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한다. [26]

교도소 동물프로그램 (PAP)은 수감자가 책임을 지고 동물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수감자에게 공감, 감정지능, 의사소통, 자제력 등이 늘어나도록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학대, 방치 또는 안락사 위험에 처했던 동물들에게도 PAP 지원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도움이 되고 있다. [27]

#### 4. 요양원 생활자의 활동 진작

요양시설 생활자들에게 매개견치료요법 (AAT)은 긍정적인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해준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시설생활을 영위하는 치매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개념인 LELQ모델 (Lived Environment Life Quality model)은 AAT를 통하여 작업요법이 고객 중심, 작업 중심, 생태학적 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실행자는 AAT의 이론적 기초를 확실하게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8]

노인이 요양원이나 장기 간호시설로 이송될 경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해 종종 수동적이고, 동요되며, 철회적이고, 우울해지고 활동 불능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29]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활동할 동기를 부여하고, 마음이 굳세지고 신체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AAT 동물이 큰 도움이 된다. 요양원 생활자들의 언어적 반응성은 매개견 유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원에 동물을 데려오는 치료사에 대하여 요양원 거주자들은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 치료사-환자 간 관계가 호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

### C. 동물매개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의 종류

동물매개치료(AAT)에는 다양한 동물 종들이 사용된다. 개별 동물은 AAT에 사용되기 전에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절한 크기, 나이, 적성, 전형

적인 행동 및 올바른 훈련수준 등이 매개동물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데, AAT를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여 시행되는 형태는 개(dog)와 말(horse)이다. 개와 말 이외에도 돌고래, 코끼리 등이 치료요법에 활용되었으나 그중 개에 대한 적용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31] [32]

### 1. 보조견 치료법 (Canine-assisted therapy)

보조견(치료견)은 동물매개치료에서 고객(치료대상)과 상호 작용하여 고객의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감정기능을 포함한 치료활동 및 복지를 상승시킨다. [33] [34] [35] 잘 훈련된 보조견은 사람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반갑다는 행동을 표현한다. [35] 신체 접촉을 통해 고객을 위로하는 치료견은 사람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익숙하지 않은 고객과의 접촉도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차분한 기질을 지녀야 한다. [34]

또한 치료견들은 지원 대상자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상호작용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대상 환자와 치료견 사이의 상호작용은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34] 이러한 이점으로 인하여 매개견치료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및 치매 (dementia)와 같은 질환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보완치료요법으로 사용된다. [33] [34] [35]

한편 교실환경에서 독창적 작문, 생활기술 개발, 그룹 활동 등에 아동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보조견을 사용할 수 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를 도와주는 ‘개 보조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활동도 있는데, 조용하고, 판단하려 들지 않으며, 행복해하는 개의 특성을 활용하여, 독서 과정을 어린이에게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활동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근거로 보조견을 아동의 학습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5]

## 2. 보조마 치료법 (Equine-assisted therapy)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으로 추천이 된다. 미국 히포테라피협회(American Hippotherapy Association)는 히포테라피를 기능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 물리치료, 작업 및 언어치료 등에 말 운동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치료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제치료마사전문협회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herapeutic Horsemanship International, PATHI)는 치료승마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화 승마수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6]

Marty Becker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치료승마를 활용하는 히포테라피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언어·청각협회 (American Speech and Hearing Association)에서는 언어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히포테라피가 매우 유효한 치료방법이라고 인정하였다. [36] 또한 보조마정신요법 (Equine Assisted Psychotherapy, EAP)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 위해 말을 개입시키는 것으로 직접적인 승마와는 관련이 없다. [37] [38]

## D. 연구의 목적

### 1. 연구 목적

#### (A) 동물매개치료 활동의 국내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조사하여 소개함으로써 국내에서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

#### (B)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 촉구

치료 분야의 가장 정점에서 역할을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의 치료보조수단으로 동물매개치료를 활용할 경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환자들과의 협조를 비교적 쉽게 얻어냄으로써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의료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한다.

### (C) 소아 분야 동물매개치료 도입 필요성

아동의 경우 질병을 앓거나 정신지체 등의 특수한 상태에 처해있을 때, 치료나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본인은 물론 보호자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이런 경우 동물을 매개시키면 아동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지시 순종도가 매우 높아져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필수적인 동물매개치료 분야에 대하여 고찰하고 알림으로써 국내에서의 그 적용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특히 치료 보조 동물 중에서 일반인에게 접근도가 가장 큰 매개견과 관련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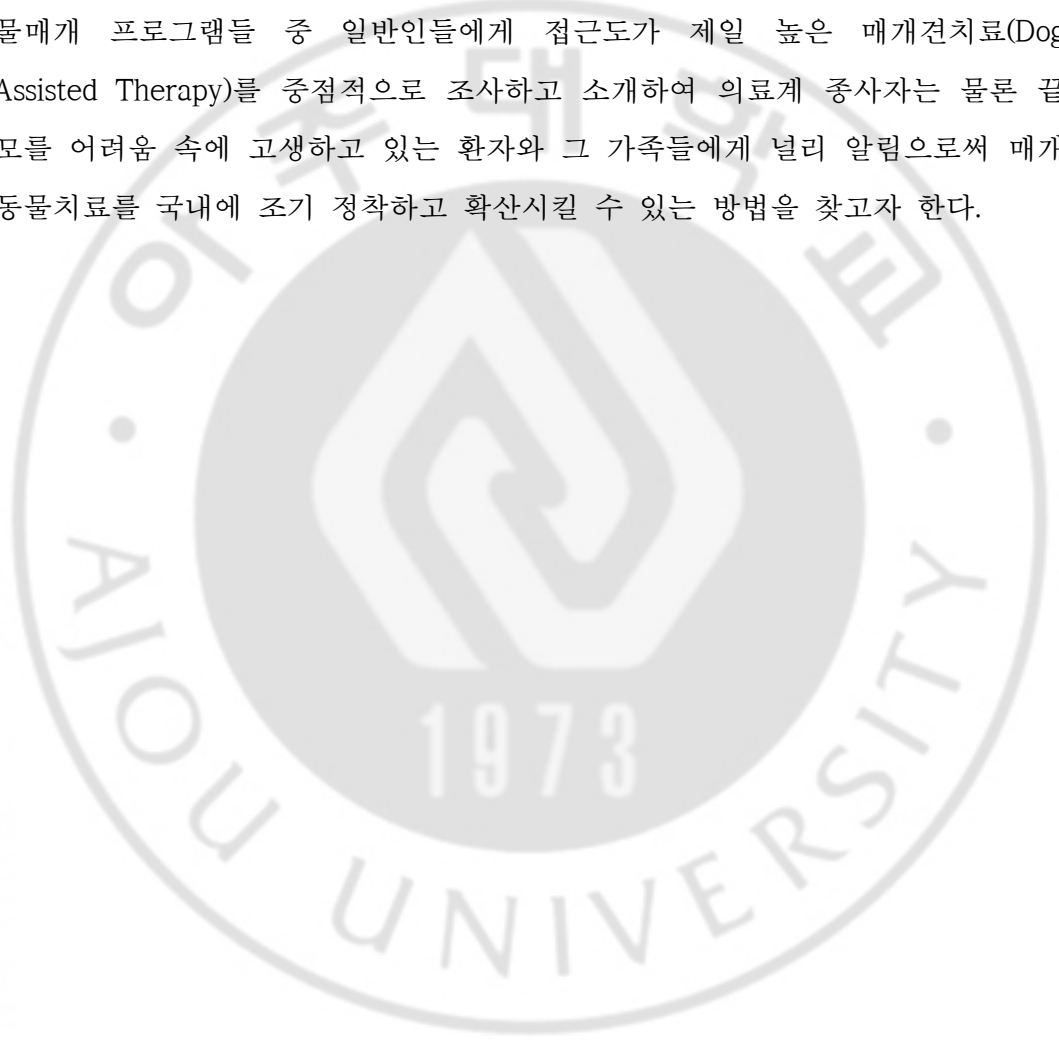
## 2. 의료계의 협력 도출 필요

국내 의료계의 현실은 의사들이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낮은 의료수가로 전국민 보험을 이끌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정책으로 인하여, 의사들은 단위시간 동안 가능하면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병원 경영수지를 맞춰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합리적인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하여 채택을 꺼릴 수밖에 없다. 동물매개치료를 새로이 진료에 적용할 경우,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주던 환자수가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들의 고민이 제일 먼저 앞을 가로 막게 된다. 막상 동물매개요법의 필요성이 의사들에게 충분히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별도의 의료 수가를 책정을 받지 못하거나, 진료시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를 공식적 치료법으로 채택하 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동물매개치료

법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선진국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어 있지만, 한국 의사들은 이를 보조치료나 대안치료로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들에게 관련 지식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당장 협력할 매개동물이나 동물관리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효과가 검증된 외국의 동물매개 프로그램들 중 일반인들에게 접근도가 제일 높은 매개견치료(Dog Assisted Therapy)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소개하여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끝모를 어려움 속에 고생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매개동물치료를 국내에 조기 정착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동물매개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문헌자료 검색과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논문과 학회지, 서적, 온라인 정보 등에 소개된 국내와 해외의 동물매개치료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해외 선진 국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동물매개치료 현황을 살피고, 국내 현황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국내 동물매개치료의 현주소를 밝히고, 동물매개치료의 국내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초점을 집중을 위하여 동물매개치료 동물 중에서 가장 접근도가 높고 관리가 수월한 치료견을 활용한 소아 영역 연구보고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술문헌정보센터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한국의학학술논문의 영문 서치정보 및 초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KoreaMed, 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구글 학술검색 서비스인 Google scholar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검색단어; 동물매개치료, 동물매개활동,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animal assisted therapy, animal assisted activity, dog assisted therapy, canine assisted therapy, children, pediatric patients 등을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또한 학술활동 범주 이외의 도서, 뉴스, 일반 자료를 얻기 위하여 Wikipedia, Google, Naive, 검색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 A. 의학 영역에서 치료견 개입의 이점

치료견이 정규 치료과정에 통합이 되어 지원이 될 때 정신 기능 저하 [39], 의사소통 장애, 언어 장애, 사회적 장애, 정서적 어려움, 행동 장애, 신체적 문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임상적 문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많고 다양한 연구결과가 축적이 되어있었다. [5] [6] [7] [8] [12]

물리치료 분야에서 보조로 사용된 치료견의 경우, 환자가 일반적으로 스스로는 하지 않을 운동을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치료 과정에 도움을 준다. 환자가 보행을 위해 치료견을 데려나가거나, 쓰다듬고, 칫솔질을 하거나,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운동강도가 높아지고 운동 조절 능력이 향상 될 수 있는데, 이는 치료견 개입에 운동성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12]

물리치료에 개를 참여시키는 것은 감각조절 및 감각해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12]. 치료견은 환자의 주의를 끌고 운동 활동과 관련된 통증을 분산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발휘한다. [11] 또한 치료견은 불안을 유발하는 작업에서 위협을 상쇄시키며, 신체적 접촉으로 생기게 되는 접촉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세션 중에 환자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편안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13]

#### B. 매개견치료 정착을 위한 노력

##### 1. 외국의 매개견치료 활동 상황

###### (A) 선진 외국에서의 매개견 문화

선진 외국에서는 사람과 가장 친숙한 개(dog)는 반려동물이라는 관계를 떠나 가족원의 지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매개견 활동이 일반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환 상태에 있는 사람의 고통, 우울, 인지장애, 스트레스, 기



분, 건강, 복지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밝혀져 있다. 이에 최근에는 혜택자인 사람보다는 인간에게 막대한 도움을 주는 개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이나 운명이 과연 정당하며 도덕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개를 걱정하고 위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40] [1]

또한 매개견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이 얻는 스트레스, 통증 및 불안 감소와 같은 다양한 이점 이외에 반대급부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알레르기, 감염, 동물관련 사고 등등이 주요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밝히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매개견 활동을 개척하고 있다. [41] [42]

#### (B) 매개견 활용 프로그램 (Animal-Assisted Therapy Programs)

동물매개치료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기관이나 협회 및 사립업체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연합하여 기준 및 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미국에 본부를 둔 IAHAI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s)라는 조직이 있어, 우리나라 기관들도 이와 연계하여 국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IAHAIO와 연계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International
- Animal Assisted Therapy of the Triangle
- Canine Therapy Corps
- Pet Partners (formerly Delta Society)
- Formosa Animal-Assisted Activity and Therapy Association, Taiwan
- Center for Chang-Pa Animal Assisted Therapy, South Korea
- INATAA - Instituto Nacional de Ações e Terapias Assistidas por Animais
- Institut fur soziales Lernen mit Tieren (ISLT), Germany
- Italian 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Animal Assisted Interventions,
- Research in Animal Assisted Therapy and Animal Assisted Education
- Animal Assisted Interventions in Care, Research and Education (AAIZOO),  
the Netherlands
- Norwegian Organization for Animal-Assisted Therapy (NODAT), Norway
- International Society for Animal Assisted Therapy (ISAAT), Switzerland
- Therapy Dogs Switzerland, Switzerland
- Pets as Therapy, U.K.

Associazione Italiana Uso Cani da Assistenza (AIUCA), Italy  
 The Israeli Association of Animal-Assisted Psychotherapy (IAAAP), Israel  
 Scandinavian Association of Therapy Dogs  
 Society for Animal Assisted Therapy and Activities, Switzerland  
 Portland Area Canine Therapy Teams  
 Animal-Assisted Therapy Programs Colorado  
 Paws for People  
 Faithful Friends  
 Dogwood Therapy  
 Therapy Dogs of Belgium  
 Training Programs  
 Animal Behavior Institute Certificate in Animal Assisted Therapy  
 Animal Assisted Therapy Programs of Colorado Training Programs  
 Animal Assisted Therapy of the Triangle Certificate and Continuing Ed Programs  
 Harcum College Animal Assisted Therapy Certificate Program  
 Bethany College Equine-Facilitated Therapy Minor Program  
 Humanima CIC Animal Assisted Therapy in Counseling Courses  
 Idaho State University Certificate In Animal Assisted Interventions In Counseling  
 Oakland University Animal Assisted Therapy Certificate  
 Texas State University Animal-Assisted Counseling (AAC) Academy  
 Tri County Community College Animal Assisted Interactions  
 University of Denver, Animal Assisted Social Work certificate program  
 University of Denver Equine-Assisted Mental Health Practitioner Certificate Program  
 University of Montana-Western- AAS in Equine Studies, Psychology Op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Animal Assisted Therapy Program  
 Bircham International University Program in Animal Assisted Therapy  
 Wesleyan College Equine Assisted Therapy Minor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Equine Assisted Therapy  
 Saint Mary of the Woods College Equine Assisted Therapy Minor  
 Houghton College Equine Assisted Therapy Minor  
 Utah State University Equine Assisted Therapy Minor  
 Equine-Assisted Therapy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herapeutic Horsemanship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rses in Education and Therapy International  
 Equine Assisted Interventions (EAI) Repository  
 Equine Assisted Growth and Learning Association  
 Guidelines for Animal Assisted Therapy (AVMA)

## 2. 국내의 매개견치료 활동 상황

(A) 동물매개치료 정착을 위한 국내 노력

국내 동물매개치료 활동의 시작은 1990년 한국동물병원협회가 미국 델타 협회(Delta Society)의 활동과 일본 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 활동을 벤치마킹하여 ‘동물은 내 친구’라는 명칭을 가지고 보육원을 방문하며 봉사 활동을 벌인 것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이삭애견훈련소에서 장애인도우미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94년 삼성화재 소속 안내견학교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공식 안내견 양성기관으로 설립되어 1995년 이리보육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후 공주 치료감호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하였다. 1996년에는 승마협회가 평택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재활승마치료 활동을 하였으며, 2001년 삼성승마단 소속 재활승마단이 발족되어 승마치료 강습회를 열고 뇌성마비 등으로 신체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재활승마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0년에는 한국삼사리보존협회에서 삼사리를 활용하여 매개치료활동을 벌였으며, 2001년 이삭도우미개학교가 국내 처음으로 치료도우미견을 훈련하고 분양을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삼성 치료도우미견센터가 발족되어 치료도우미견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시하였다.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동물매개치료 교육은 2005년 서정대학교가 애완동물학과에 동물매개치료학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시작이 되었고, 2007년 원광대학교 애완동식물학과에 동물매개치료학 과목이 개설되고, 2008년 원광대학교 보건보완의학대학원 동물매개치료학 전공과 신설로 이어졌다. 2009년 서울호서전문학교에 동물매개복지 전공과가 설치되었고, 2013년에는 대구미래대학에 동물매개재활과가 설치되었다.

동물매개치료 연구소 현황으로는 푸른나무아동심리연구소([www.zape.co.kr](http://www.zape.co.kr)), 이보연 아동가족상담센터([www.sangdam.kr](http://www.sangdam.kr)), 원광대학교 동물매개치료연구소, 경북영광학교 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www.cpanimal.com](http://www.cpanimal.com)) 등이 있다.

동물매개치료 시설의 활동으로는 대구광역시 재가노인 2013, 영월 핏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 기본구상 35 복지센터의 가정방문 동물매개치료사업,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해피플레이 동물매개활동, 에바다 장애인복지관 동물매개치료활동, 익산시 장애인복지관 동물매개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동물매개치료와 관련한 협회로는 2006년 한국동물매개치료복지협회 (www.kaatwa.org)가 설립된 이후 한국 HAB협회 (cafe.naver.com/kshab), 2007년 한국동물매개치료협회 (cafe.daum.net/ahnkook3), 한국동물협회 반려동물문화사업단-KAHA HAB센터 (cafe.daum.net/habcenter) 등이 설립되어 있다. 2008년에는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www.kaap.org)가 설립되어 활발한 학술활동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09년 국내 동물매개치료 관련 단체들이 통합된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 (www.kfaat.org)이 창립되어 전문적인 동물매개치료사 및 활동사를 배출하고 있다.

현재 대학, 협회, 동물매개치료센터, 특수학교, 양로원, 요양원, 병원, 복지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바우처 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물매개치료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 (B)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는 동물매개치료 분야의 활성화와 관련 학문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목표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동물매개치료 관련 학회다.

심화된 정기적인 학술활동을 통하여 전문가를 훈련시키고,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을 촉진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을 통한 전공자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을 통한 우수한 인력 배출에 힘을 쓰고 있다.

#### (C) 둥글개 봉사단 활동

본 연구자는 2001년 이삭도우미개학교를 설립하여 반려견을 훈련하고 동물매개활동을 통하여 소외된 사람이나 활력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최근 2018년 ‘둥글개 봉사단’을 조직하여,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유기견입양교육 & 후원활동으로 인간에게 상처받은 생명을 인간이 구조해서 다시 인간을 치유하도록, 유기견을

교육하여 동물매개치유 도우미견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다.

둥글개봉사단이 벌이는 활동을 6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1) 소외계층과 함께하기</p>	<p>(2) 생명 존중 &amp; 인성 교육</p>
	
<p>(3) 고통 분담 &amp; 치유 상생</p>	<p>(4) 펫로스 증후군 극복</p>
	
<p>(5) 유기견 문제 해소</p>	<p>(6) 펫 반려문화 정착</p>

그림 1. 둥글개봉사단의 주요 활동

(1) 소외계층과 공생(Live together with underprivileged peoples) : 유기견을

교육 후 매개치유 도우미견으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거나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등에 도우미견으로 입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후원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입양자와 입양견 모두의 웰빙 상태를 지원하고 있다.

(2) 생명존중/인성교육 (Respect for Life/Dog/Children) ; 청소년과 어린이가 직접 동물과의 교감과 소통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한다.

(3) 고통분담/치유/상생 (Share for Trauma/Pain-sharing/Disaster) : 재난 등의 사고 발생 시 심리치유 도우미견과 봉사자가 함께 재난민의 손을 잡아주며 아픔과 고통을 분담한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준다.

(4) 펫 로스 증후군 극복 (Relieve from pet loss syndrome) :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다가 반려동물이 죽게 됨으로써 인해 반려견주가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은 매우 크다. 매개치유견과 함께 그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면서 펫 로스 증후군의 고통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5) 유기견 문제 해소 (Save & Accept the abandoned dogs) : 안락사 위기의 유기견을 입양, 교육 후 일반가정으로 다시 입양을 보낸다. 입양자와 입양견을 꾸준히 관리해 입양견이 다시 과양되는 악순환을 막고 유기견 감소와 과양률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6) 펫 반려문화 정착 (Settle Companion Culture with Animal) : 반려인 들의 성숙된 문화의식을 위해 동글개봉사단의 ‘해피나인(Happy9) 캠페인’ 을 통해 바른산책문화만들기/ 펫티켓/ 에티켓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통해 보다 성숙된 펫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시군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협력하여 교육을 펴나가고 있다.

#### (D) 한국동물매개치료복지협회

평택대학교 대학원을 기반으로 동물매개치료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동

물매개심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며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펴고, 일반인들에게도 동물매개치료의 유효성에 대하여 설명회를 열어 동물매개치료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 (E)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반려동물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공존하는 환경조성을 통하여 생명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동물매개치료를 펼쳐가는 전문가협회로 호서동물매개치료센터,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협업관계를 통하여 조절된 임상활동을 시행하고 동물매개치료에 필요한 자격을 인증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 C. 아동에서 매개견치료가 효과적인 적용 분야

동물매개치료가 도움이 되는 많은 조건이나 장애에 심리적 장애, 발달 장애, 치매, 암, 만성 통증, 진행성 심부전 등이 포함되는데, [34] [32] 동물매개치료 요법은 일반적으로는 심리적 장애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그중 소아에 흔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주요 우울장애 (MDD) 등이 동물매개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심리장애를 차지한다. [19] [32] [34] [35]

동물매개치료를 적용 분야와 질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완화치료 (Palliative treatment)

의학의 발전으로 아동 사망률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생명이 위협받는 위중한 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 및 생명 연장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외로움 및 불안 경험을 하는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 완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어린이와 그 가족원이 겪는 고통은 엄청날 수가 있다.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및 영적 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 보조 요법 (AAT)은 어린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비 약리학적 접근법으로 유해한 부작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39]

## 2. 장애아동에서의 적용 (Disabled children)

다양한 정신 및 신경질환을 다루는 부서에서 동물매개치료요법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뇌성마비, 자폐장애질환, 행동장애 등의 질환을 가진 아동의 98%에서 신체적 또는 행동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되었다. 매개 동물치료(AAT)가 입원 환자 환경에서도 대다수가 필요하다 답하여,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AAT는 의료 및 수술 절차와 같은 스트레스 유발 환경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제안이 되었다. [43]

## 3. 학교생활 적응 (Adaptation to school life)

동물보조요법은 균형 잡힌 학생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완적인 접근법이다. 특히, 학교의 보조건치료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수업 참여 및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연결성 강화를 발휘할 수 있다. 학교 간호사는 최적의 건강과 학업의 성공 사이에서 연락담당을 맡아 학교 동물보조요법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은 AAT의 개입으로 행동문제를 줄이고 사회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 (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만을 받은 아동과 비교하여, 매개건치료요법과 인지행동요법을 모두 받은 아동은 ADHD 증상의 중증도가 감소했다. [23] [36] [38] 그러나 매개건치료요법



은 장기 치료에서 ADHD 증상 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4] 국내 아동에서 주1회 50분씩 12주 동안 12회기의 매개견치료를 하였을 때 공격성 행동의 정도와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45]

##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는 심리적 장애로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정도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 [46] 치료견 보조요법은 주로 재향 군인의 외상 치료를 위한 동물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치료 탈락률이 높고 정규적인 정신과치료에 순응도가 낮아 대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6]

치료견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을 포함한 정신건강 스펙트럼과, 더 나아가서는 PTSD의 두드러진 증상인 재 경험, 회피, 신념/감정의 변화, 과도 각성 등에 두 가지 유형의 좋은 영향을 미친다. 매개동물의 직접적인 영향은 불안과 혈압의 감소를 포함하지만, 간접적 영향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고 일상 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46] 이 점이 AAT를 아동학대 피해자, 특히 성학대 피해자의 치료에 적용해야하는 근거라 하겠다.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을 관찰 할 때 특정 신경화학물질이 방출된다. [46] 마찬가지로, 치료견 보조요법은 잠재적으로 옥시토신 분비를 통하여 사회 및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19] 동물의 심리학적 이점은 주로 개와 인간의 상호 작용, 불안 및 우울 증상의 감소, 탄력성 증가에 중점을 둔다. [59] 이러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은 감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여러 가지 PTSD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 [59] [2] 또한 동물의 존재는 대상자에게 위협이 없음을 상기 시켜서 침입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3] 매개동물은 감정마비 경험을 목표로 하여 대상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으며, [3] 동물과의 상호 작용은, 일상생활 루틴을 통해 대상자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감시키고, 친교를 통해 대중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 [46] [5]

역사적으로는 군대에서 동료와의 의사소통 및 위협 등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개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현대적 전투에까지 확장되어왔다. [59] 제2차 세계대전 때 개는 전투중 정서적 지원을 위한 치료에 사용되었다. [4] 다양한 동물들을 AAI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개와 말은 PTSD로 고통 받는 재향 군인을 위한 재활을 위한 조사 작업에 활용되었으며, [59] 매개건요법 및 치료승마는 재향 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9]

보조견은 다양한 환경에 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반응이 뛰어나고 지능적이다. [47] 이러한 이유로 개는 AAI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이다. 개는 훈련 수준과 특정 요구에 따라 분류된다. 서비스견은 신체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장애와 관련된 전문화된 지원을 통해 구호를 제공하며, 정서지원 동물 (ESA)은 심리적 구호만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48] 치료동물은 종종 치료과정 중에 상담사 또는 치료사를 지원함으로써 치료환경에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48] 서비스견, 정서지원견, 치료견 등과 함께 PTSD에 특화된 서비스견인 PSD는 PTSD를 가진 재향 군인에게 맞춤형으로 양성되고 배정되어 다양한 증상에 대해 지원하는 한편 [49] 정서적, 정신적 건강 욕구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46]

개는 TSD로 고통 받는 참전용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실하게 알림으로써, 참전용사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준다. [5] 개는 인간에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황을 예방하고, 악몽에서 참전용사를 깨우며, 참전용사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등으로 상황에 따라 참전용사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50] 개는 또한 참전용사에게 비판적이지 않으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전용사가 바람직한 중단이나 비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조언 없이도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51] 놀기, 걷기 등을 통한 개와의 상호작용은 참전용사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준다. [51] 개와 참전용사 간의 상호작용은 격리된 참전

용사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PTSD 증상을 줄여줌으로써 참전용사의 평온을 증가시킨다. [19]

개와 마찬가지로 말도 PTSD로 고통 받는 재향 군인의 치료동물에 포함되어있는데, [8] 수용 가능한 비 판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50] 재향 군인의 PTSD 관련 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을 더욱 촉진시킨다. [52] 말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참전용사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관계가 생성되고 대응이 이루어지므로 참전용사가 신뢰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능력이 회복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53]

말을 이용한 치료 작업은 지상 활동, 탑재된 활동 또는 이 둘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8] 치료 환경에서 말은 인지 재구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마음의 실천을 증가시킬 수 있다. [52]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기술(description)을 하거나 자기인식 및 자부심을 표현하는 등에서 반응이 많이 수월해졌으며, 민간생활로 전환하는 동안 안전과 지원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이 증진되었다. [54] 말 증재를 바탕으로 판단강요가 없는 공간에서 참전용사의 감정과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을 때 행복 증가, 사회지원 증대, 수면위생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54]

## 6. 자폐증 스펙트럼 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AAT는 공격성, 과민성, 산만 및 과잉 행동과 같은 ASD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 [19] 한 검토보고는 9개의 연구 중 5개에서 ASD를 가진 어린이들에 치료승마의 효과가 긍정적이라 하였다. 매개변 증재는 ASD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자극, 불안을 줄임으로써 보다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였다. [32] [50] 개를 데리고 노는 것은 ASD를 가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증가시킨다. [50] 동물은 사회적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ASD를 가진 어린이는 동물이 있는 상태에서 인간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 그러나 AAT가 부모-자식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19]

## 7. 정신분열증 (Schizophrenia)

동물보조요법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전통적 치료와 심리적·사회적 재활을 받는 과정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보조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자들은 증상학적으로도 호전이 될 뿐만 아니라, AAT프로그램 준수 및 AAT세션 중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점차 그 적용이 늘고 있다. [55] 국내의 매개견 개입을 통한 연구보고에서도 정신분열병 환자의 대인관계 변화, 문제해결능력, 자기주장, 자아존중감 등 사회기능과 관련된 기능들이 향상됨을 확인되었다. [56]

## 8. 아동학대 (Child abuse)

동물은 정신과치료 분야에 오랫동안 포함되어왔다. 참전군인 생존자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동물매개요법(AAI)으로 가장 일반적인 동물 종은 개와 말이었으며,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우울증, PTSD 증상, 불안의 감소였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외상에 대한 보완치료로 AAI를 제공하는 것은 무난하지만 AAI의 치료 가능성, 효능, 치료지원 프로토콜 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57]

아동 성학대 사건에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법의학적 인터뷰 중에 치료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안정한 어린이의 불편을 덜기 위한 매개동물소아지원프로그램 (Therapy Animals Supporting Kids Program)의 권장사항이다. [58] 이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아동성학대 혐의 법의학인터뷰 과정에 보조견을 투입하여 대상아동의 타액 코티솔 및 면역 글로블린A, 혈압 및 심박동수 등을 인터뷰 전후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보조견의 존재가 피해아동에게 완충장치나 보호수단으로 작용하여 동물중재 그룹 아동의 심박동수가 대조군에 비하여 낮았음이 밝혀졌다. 이는 법의학 인터뷰에 관리자-치료견 팀 (Handler-Animal Team)을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 아동복지요원, 임상치료사 모두에게 실질적 가치가 있다는 결론으로, 성학대 이외에도 다른 모든 유형의 외상을 겪는 아동을 위한 치료프

로그램에 동물매개치료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5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학대 피해아동을 세 그룹을 나누어, 한 그룹에만 동물매개 지원을 하여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치료견 지원을 받은 그룹의 어린이들에서 불안, 우울증,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 및 성적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외상 증상들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60]

## D. 치료보조견의 자격 (Distinctive features of assistance dog)

매개치료견과 관련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특정한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한편, 국제적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 준수되는 법규로서 지역법규에 근간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보조견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2] [3] [4] [5] [6]

### 1. 치료보조견이 되기 위한 충족 기준 (Distinctive features of assistance dog)

- (A) 개의 파트너는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며, 소속 국가나 지역 법률상 장애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 (B) 개는 어떤 방식으로든 파트너의 장애를 완화 시키도록 구체적으로 훈련되어서, 문을 열거나, 고혈당 및 알레르겐 감지하고 알리기, 울리는 전화에 경고하는 등으로 시각 또는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 (C) 개는 공공장소에서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 되며, 건강과 위생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 구성원에게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 (D) 일부 보조견은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하네스(가슴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만 법률에 따라 요구사항은 아니다.

## 2. 치료보조견의 훈련 (Training of assistance dog)

매개견은 전통적으로 자선 단체와 다른 조직에 의해 훈련을 받았으며, 개가 2세경 훈련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장애인과 훈련된 개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된다. 최근에는 자신의 보조견을 스스로 훈련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개를 선택하고, 개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의해 훈련되며 해당 장애자가 또한 최종 운용자가 되는 것이다. 향후 보조견이 받는 훈련 기간 및 유형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만, 모든 보조견 후보자는 특정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다.

### (A) 치료보조견의 선택 (Selection of assistance dog)

보조견 후보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건강, 기질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된다. 맹인안내견을 육성하여 공급한 대형기관인 The Guide Dogs for the Blind는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건강한 강아지 확보를 위해 자체 육종하고 유지해 나간다. [6] 흑자는 평판 좋은 개 (dog) 종자로 부터 잠재성이 있는 강아지를 신중하게 선택해 내거나, 이미 가족의 일부인 개를 훈련시켜내는 일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영이 되고 있는 TV 쇼 ‘구조견을 슈퍼견으로! (Rescue Dog to Super Dog)’는 구조견을 선택하여 치료에 투입되는 보조견으로 훈련 양성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61]

### (B) 치료보조견의 사회화 (Socialization for assistance dog)

강아지의 잠재적 삶의 첫 기간은 대개 공식적인 훈련보다는 사회화에 사용된다. 대규모 공식 기관에서는 첫해에 강아지 양육부모를 통하여 사육하며, 강아지는 나중에 일할 환경을 대비한 광경, 소리, 냄새 등으로 둘러싸인 정상적인 가족 환경에서 자라면서 깨끗함 유지와 화장실 훈련을 배우고, 자신감과 행복을 배운다. [1] [12] 주인 트레이너는 강아지를 스스로 키우므로, 나중에 자신이

개를 조정하며 함께 살게 되지만, 나중에 강아지가 일할 환경에 자신감을 주고, 경험을 주고, 사회화하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C) 치료보조건의 과제 훈련 (Task training for assistance dog)

강아지가 충분히 크게 되면 그들은 직업 훈련을 포함하는 전문 훈련을 받게 된다. 매개견이 독특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과제훈련 작업이다. EU에서는 보조견 자격조건으로 사용자의 장애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작업훈련을 3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보조견 사용자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묻고, 보조견이 장애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법적 질문을 통하여 보조견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0] 보조견은 현재 또는 미래의 사용자가 지닌 장애에 따라 배우는 것이 달라지게 되므로 개를 훈련시킬 수 있는 업무 유형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는 떨어진 물건을 집어 들거나,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는 것에서부터, 자폐증 환자의 자해행동을 막기 위한 압박요법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 할 수 있다. [11]

(D) 치료보조건의 순종과 공공장소 접근 (Obedience and public access of assistance dog)

보조견 후보는 자신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업무를 배우는 동시에 행동이 좋고 예의 바르며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보조견을 훈련시키는 대형기관은 자체적으로 사내 훈련 과정을 이용하는데, 소유주 트레이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기에 접근 할 수 있다. 소유주 트레이너 지원자들의 경우, Kennel Club 금·은·동 복종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인정된 복종 및 행동 표준과 공공장소 접근 테스트를 획득 할 것을 권장한다. 공공접근 테스트는 개가 공개된 장소나 슈퍼마켓, 식당

등 소유주가 보조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애완동물 친화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3]

### 3. 치료보조견의 분류 (Classification of assistance dog)

미국에서 기능성 개는 보조견과 시설견으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15] 서비스견은 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별적으로 훈련 된 개로 정의되며,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및 지방 정부,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이 출입 할 수 있는 시설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개와 동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시설견은 작업 전문가가 여러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 [14]

(A) 기능에 따른 분류 : 시각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견 또는 신호견, 이동 보조견, 의료 대응견, 정신과 서비스견, 자폐증 보조견 등이 있다.

(B) 시설에 따른 분류 : 법률 시스템에서 일하는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법원 시설견은 범죄의 수사, 기소 및 기타 법적 소송에서 범죄 피해자, 증인 및 기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한편 교육시설견은 특수 교육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리한다. 또한 건강관리견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및 기타 건강관리 전문가가 조정하여 환자의 회복 및 증상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 IV. 고찰

### A. 국내 동물매개치료 활동의 현주소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행동 전문가가 매개치료견을 활용하여 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동물매개치료(AAT)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올바른 정보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정규화 되어 있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도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일부 정인지체를 앓는 환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동물매개치료 경험, 유효성, 활용분야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그 도입 및 활용, 특히 소아 영역에서의 필요성과 도입의 시급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급속한 산업의 성장으로 사람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겪게 되었고 인간과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로가 되어 주었던 반려견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은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반려견은 애완동물 기능 이외에도 사람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매개견 치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동물매개치료 활동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분야별 매개동물 적용을 위하여 매개동물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와 국내와 국외의 동물매개치료 활동 적용 대상자의 다양성과 효과들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는 많은 제약으로 아직까지 매개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의 범위가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적용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했고 치매, 자폐증환자 등에서 큰 규모로 시행한 연구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국내와 국외의 동물매개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자료를 분류

하고 정리하여 보았을 때 국내에는 동물매개치료 요법이 아직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의료계에서도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확실한 효과를 보인 활동부터 채택하여 시작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의사들에게 동물매개치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본 요법이 알려지고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의료계로부터 관심을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 **B. 국내 동물매개치료 연구조사 활동**

### **1. 국내 동물매개치료 연구보고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반려견연구센터와 사회복지 전공 교수들이 함께 전북지역 보육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동물매개치료 관련 최초라 할 수 있다. 이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교육학 전공 연구자들에 의하여 동물매개를 통한 독서치료법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킨다는 연구보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주의력 장애, 정신분열병 등의 질환에서도 동물매개 치료가 긍정적 효과를 있음이 보고되었다. [45] [56]

이처럼 해외에서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내에 다양한 시도와 검증을 하는 정도이며, 매개동물치료를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할 체계적 제도와 시스템이 완비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 분야 별로 특화된 연구나 의료계와의 협력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 **2. 동물매개치료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전망**

의사는 진료를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이때 의사의 행위는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에 의료행위로 등록된 진단, 검사, 치료 행위만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물매개치료 처방을 내거나 매개동물치료사에게 치료지원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사가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범연구 차원의 접근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른 시일 안에 국제적 수준의 연구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의료계와 협업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C. 의료계 협력을 도출을 통한 동물매개치료의 확산

### 1. 대한민국에서 동물매개치료의 의학적 적용에 대한 전망

의학 이외의 전공분야와 임상 의사가 협력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의 의료수가는 낮은 편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의사의 업무량은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사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단위시간 동안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므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척하거나, 환자의 불편을 덜기위해 타 분야와 협력을 해나가기 어렵다 여겨진다.

침단의료법의 개발이나 치료수가가 높은 새 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욕구는 높지만, 동물매개치료(AAT)와 같이 교육받은 바 없고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대안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료시간에 선뜻 매개동물을 적용하려는 의사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치료적 접근이 어려웠던 대상이나 치료효과가 낮았던 질병에 대하여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입증된 AAT 유용 질병 분야에 AAT를 소개함으로써 환자를 위하려는 의사들이 분명 존재하므로, 이들의 활동 편의를 위하여 AAT의 효능을 의료계에 꾸준히 알리고 함께 연구하는 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 2. 동물매개치료의 의학적 적용을 위한 노력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매개치료(AAT)는 매개동물치료사들에 의해 제도권 의료와는 별개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 이는 AAT 서비스를 필요

로 하는 대상자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AAT 서비스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AAT를 의료행위 범주 내로 진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AAT를 의료보험 급여청구항목으로 등재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동물매개치료를 도입 확산 정착시키는 가장 확실하고도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AAT를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술로 등록을 하고, 의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인 연후에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매개동물치료사와 함께 협력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구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의료계 및 동물매개치료 분야 전문가들이 미리 모여 AAT 서비스의 도입 및 효과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국민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3. 동물매개치료의 사회 기여 전망

#### (A)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국가에서 허용된 현행 의료행위 범주에서 환자의 치료 순응도가 낮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는 등으로 치료효과가 미흡해서 환자는 물론 그 가족원에게 많은 심적 고통이나 육체적 노동, 시간 투자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선진국 연구사례를 보면 이러한 난치성 질환 상태에서 AAT가 상당한 치료효과를 내거나 문제 상황의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불치 상태로 고생하는 환자의 상태 호전은 가족원 전체에게 안정, 행복감, 시간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비용을 줄여주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B) 국가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

매개동물치료를 통하여 확실하게 도움을 받는 질병과 환자 계층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많은 선진국의 연구 보고를 볼 때, 이는 AAT의 도입이 환자의 병원 방문 감소 및 투약 감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재정에도 분명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계속 늘어가는 일인가족의 병리현상인 우울, 고독, 비만 등등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반려동물 개입은 비용효과면에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 (C) 일자리 창출 효과

국내에 동물관련학과를 전공하고도 전공을 살리지 못한 채 특별한 일자리 없이 지내는 다수의 인력에게, 동물매개치료 확대는 새로운 공식적인 일자리가 늘고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특정 환자군의 건강증진이 함께 벌어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우울과 활동저하,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지원은 막대한 자살예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일자리도 늘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D. 본 연구조사의 제한점 및 교훈

### 1. 연구자 개인 활동에 대한 소회

연구자는 1995년부터 보육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의 시설을 매개견과 함께 방문하여 시설 생활자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격려하는 동물매개활동(AAA)을 벌여왔으며, 1999년부터는 특수학교에서 심신장애 학생들에게 동물매개교육(AAE)을 실시하고 의사를 도와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동물매개치료(AAT)를 하는 등 다양한 동물매개요법(AAI) 관련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동물매개치료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동물육성 관련 학과에서 동물치료사 배출하는 한편, 애견훈련소를 통하여 양질의 치료견을 양성해오고 있다.

연구자는 그동안 다양한 복지시설 수용자나 특수학교, 병원 환자들에게 치료견 서비스를 제공해오면서, 동물매개요법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많은 활동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학술의 장에 올려놓음으로써 여러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연구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백한다. 본 연구 또한 연구자가 직접 시행한 매개견

치료 활동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국내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과학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학술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되었다. 앞으로 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하여 대상 환자의 규모를 늘리고, 치료전 개입 전후로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상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물매개치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연구결과를 산출하고자 한다.

앞으로 동물매개치료 연구대상으로는 자기 의사를 밝히거나 주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불치병을 앓는 소아환자나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매개견치료 지원을 할 경우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 2.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족

국내 아동학대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33,532건이 신고 접수되어, 그중 24,604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으며, 7,988건에서 학대행위자가 법적처벌을 받았다. 학대유형으로는 신체학대 3,436건(14.0%), 정서학대 5,862건(23.8%), 성학대 910건(3.7%), 방임 2,604건(10.6%), 중복학대 11,792건(47.9%)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중 사망례가 30명(0.1%)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지원(상담서비스, 의료지원, 심리치료지원, 가족기능강화, 학습 및 보호지원, 사건처리지원, 행위자 수탁 프로그램, 피해아동 수탁 프로그램 등)을 받고 피해아동의 82.0%가 원 가정으로 복귀되는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동의 일부에서 재학대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생기고 있다. [62]

대다수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서 심리발달장애와 정신적 외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우에 PTSD가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관리하는 쉼터에 수용된 피해아동들의

빠른 심리회복을 위하여, 초기부터 심리치료와 동물매개치료를 함께 지원하게 된다면 학대피해 아동들의 고통이 조속히 줄어들고 심리재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동물매개치료를 적용할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어린이의 경우 치료견 때문에 겁에 질리는 수가 있고, 동물매개치료 동안 동물과 어린이 사이에 각별한 유대가 형성되어 치료 끝 단계에서 헤어지기 어려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유기견을 훈련시켜 영구 분양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해법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조사 및 지원에 동물을 매개할 경우 그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료견 자체가 회복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의 동물매개치료와 관련한 연구조사를 할 때 근본적 기작을 밝히려는 노력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선진외국에서는 동물매개치료 특히 매개견을 이용한 치료활동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증명되어 소아에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적용 분야가 늘어나고 세분화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30여 년 전부터 동물매개치료 보급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초기에는 사립시설 위주로 치료매개동물과 동물매개치료사를 양성해왔으나 10여 년 전부터는 협회, 학회, 대학을 주축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에 속도와 안정을 꾀하게 되어 앞으로 동물매개치료 사업에 힘찬 발전이 있으리라 전망이 된다.

한편 국내 동물매개치료 보급의 장애 요인으로 의료계의 무관심과 부족한 학술활동이 지적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와의 협력 증진을 제안한다. 선진외국에서 입증된 질병 분야에 매개동물치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를 설득하고 다학제간 융합연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결과물로 국제학술활동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동물매개치료 서비스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동물관련 학자들이 의사들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현행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심리치료사, 의료기사와 마찬가지로 동물매개치료사도 의사의 환자 치료 과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의료기능직으로 등록을 하고, 동물매개치료 행위를 의료급여항목에 등재 시키는 등의 노력이 동물매개치료를 국내에 빠른 시일내에 널리 보급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본다.



## 참고문헌

1. AH Fine: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Foundations and guidelines for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5th ed. New York, Elsevier, pp 61-62, 2019.
2. Rainer Wohlfarth, Line Sandstedt. Animal Assisted Activities with Dogs: Guideline for basic requirements & knowledge. Publishing House of Janusz Korczak Pedagogical University, 2016. ISBN 8365277026, 9788365277022
3. Wikipedia encyclopedia. Assistance dog. [https://en.wikipedia.org/wiki/Assistance\\_dog](https://en.wikipedia.org/wiki/Assistance_dog)
4. Kruger KA, Serpell JA (2010).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in mental health.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pp 3348, 2010.
5. O’Haire ME, Gurin NA, Kirkham AC (2015). Animal-Assisted Intervention for traum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6:11-21, 2015.
6. Glintborg C, Hansen TG. How Are Service Dogs for Adults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tegrated with Rehabilitation in Denmark? A Case Study. *Animals*. 7(5):33, 2017.
7. O’Haire ME, Gurin NA, Kirkham AC, Daigle CL. Animal-Assisted Intervention for Trauma,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HABRI Central Briefs*. August 25:1-8, 2015
8. Simon JM, Davis & Francois R. Valla. Evidence for domestication of the dog 12,000 years ago in the Natufian of Israel, *Nature* 276:608-610, 1978.
9. Michele L. Morrison, MS, RN, ANP, HNP, CHHC. Health Benefits of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Complementary Health Practice Review*, 12(1):51-62, 2007.
10. Wilson EO. *Biophili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ISBN0-674-07441-6.OCLC10754298. 1984.

11. Odendaal JS. Animal-assisted therapy—magic or medicin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9(4): 275–280, 2000.
12. Barker SB, Dawson KS. The effects of animal-assisted therapy on anxiety ratings of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Psychiatric Services*. 49(6): 797–801, 1998.
13. Marcus DA. The science behind animal-assisted therapy. *Current Pain and Headache Reports*. 17(4):322, 2013.
14. Netting FE, Wilson CC, New JC. The Human-Animal Bond: Implications for Practice. *Social Work*. 32(1):60–64, 1987.
15. Beck A. *Between Pets and People: the Importance of Animal Companionship*. New York: Putnam. 1983
16. Walsh F. Human-animal bonds II: the role of pets in family 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48(4): 481–99, 2009.
17. Brooks HL, Rushton K, Lovell K, Bee P, Walker L, Grant L, Rogers A. The power of support from companion animals for people living with mental health problems: a systematic review and narrative synthesis of the evidence. *BMC Psychiatry*. 18(1):31, 2018.
18. Stapleton M. Effectiveness of Animal Assisted Therapy after brain injury: A bridge to improved outcomes in CRT. *NeuroRehabilitation*. 39(1):135–40, 2016.
19. Humphries T. Effectiveness of dolphin-assisted therapy as a behavioral interven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Bridges*. 1(6):1–10, 2003.
20. Krause-Parello CA, Sarni S, Padden E. Military veterans and canine assistance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47: 43–50, 2016.
21. Braun C, Stangler T, Narveson J, Pettingell S. Animal-assisted therapy as a pain relief intervention for children.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15(2):105–109, 2009.

22. Goddard AT, Gilmer MJ. Role and Impact of Animals with Pediatric Patients. *Pediatric Nursing*. 41(2):65-71, 2015.
23. Gilmer MJ, Baudino MN, Tielsch Goddard A, Vickers DC, Akard TF. Animal-Assisted Therapy in Pediatric Palliative Care.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51(3): 381-95, 2016.
24. Allison M, Ramaswamy M. Adapting Animal-Assisted Therapy Trials to Prison-Based Animal Programs. *Public Health Nursing*.33(5): 472-80, 2016.
25. Bachi K. Equine-facilitated prison-based programs within the context of prison-based animal programs: State of the science review.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52:46-74, 2013.
26. Van Wormer J, Kigerl A, Hamilton Z. Digging deeper: Exploring the value of prison-based dog handler programs. *The Prison Journal*. 97(4): 520-38, 2017.
27. Prison animal programs are benefitting both inmates and hard-to-adopt dogs: Experts. ABC News. Retrieved 2019-10-05.
28. Wood W, Fields B, Rose M, McLure M. Animal-Assisted Therapies and Dementia: A Systematic Mapping Review Using the Lived Environment Life Quality (LELQ) Model.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July 2017, Vol. 71, 7105190030. <https://doi.org/10.5014/ajot.2017.027219>
29. Sutton, DM. Use of pets in therapy with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2nd, Toronto, Ontario, Canada, August 24-28, 1984.*
30. Fick KM. The Influence of an Animal on Social Interactions of Nursing Home Residents in a Group Setting.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7(6):529-534, 1993.
31. Marx MS, Cohen-Mansfield J, Regier NG, Dakheel-Ali M, Srihari A, Thein K. The impact of different dog-related stimuli on engagement of persons with dementia.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25(1):37-45, 2010.

32. Andreasen G. Animal-assisted therapy and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 Early Intervention*. 10:117, 2017.

33. Fung S. Canine-assisted reading programs for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rationale and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dogs in assisting learnin. *Educational Review*. 69(4):435-450, 2017.

34. Krause-Parello CA, Sarni S, Padden E. Military veterans and canine assistance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nar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47:43-50, 2016.

35. Lundqvist M, Carlsson P, Sjdahl R, Theodorsson E, Levin L. Patient benefit of dog-assisted interventions in health care: a systematic review.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17(1): 358, 2017.

36. Becker M. *The Healing Power of Pets: Harnessing the Amazing Ability of Pets to Make and Keep People Happy and Healthy*. New York: Hyperion. 2002. ISBN978-0-7868-6808-7.

37. What is EAP and EAL? Equine Assisted Growth and Learning Association.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12-03-25. Animal-assisted therapy - Wikipedia.

38. Quiroz Rothe E, Jimnez Vega B, Mazo Torres R, Campos Soler SM, Molina RM. From kids and horses: Equine facilitated psychotherapy for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Health Psychology*. 5(2): 373-383, 2005.

39. Kanamori M, Suzuki M, Yamamoto K, Kanda M, Matsui Y, et al. A day care program and evaluation of animal-assisted therapy (AAT) for the elderly with senile dementia. *Am J Alzheimers Dis Other Demen* 16: 234-239, 2001

40. Kristien Hens. Ethical Responsibilities Towards Dogs: An Inquiry into the Dog-Human Relationship.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22: 3-14, 2009.

41. Mensink, Megan Marie. What do Therapists Think is the Uniqueness of Animal Assisted Therapy that Engages Children?. *Social Work Master's Clinical Research Papers*. 230, 2013. [https://ir.stthomas.edu/ssw\\_mstrp/230](https://ir.stthomas.edu/ssw_mstrp/230)
42. Fabrizio Bert, Maria Rosaria Gualano, Elisa Camussi, Giulio Pieve, Gianluca Voglino, Roberta Siliquini. Animal assisted intervention: A systematic review of benefits and risks.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8(5): 695-706, 2016.
43. Kovacs Z, Bulucz J, Kis R, Simon L.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ffect of animal-assisted therapy on nonverbal communication in three schizophrenic patients. *Anthrozoos* 19: 353-364, 2006.
44. Bivens A, Leinart D, Klontz B, Klontz T. The Effectiveness of Equine-Assisted Experiential Therapy: Results of an Open Clinical Trial. *Society & Animals*. 15(3): 257-267, 2007.
45. 서강오. 치료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과잉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2012
46. Gillett J, Weldrick R. Effectiveness of psychiatric service dogs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veterans. Hamilton, ON: McMaster University. 2014.
47. Nimer J, Lundahl B. Animal assisted therapy: a meta analysis. *Anthrozoos* 20: 225-238, 2007.
48. Schoenfeld-Tacher R, Hellyer P, Cheung L, Kogan L. Public Perceptions of Service Dogs, Emotional Support Dogs, and Therapy Dog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14(6): 642, 2017.
49. van Houtert EA, Endenburg N, Wijnker JJ, Rodenburg B, Vermetten E. The study of service dogs for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scoping literature review.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9(Suppl 3): 1518199. 2018. <https://www.tandfonline.com/loi/zept20>

50. Fine A. Handbook on Animal-Assisted Therapy: Foundations and Guidelines for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Elsevier Science & Technology. pp.226-229, 2015. ISBN9780128014363.
51. Stern SL, Donahue DA, Allison S, Hatch JP, Lancaster CL, Benson TA, Johnson AL, Jeffreys MD, Pride D. Potential Benefits of Canine Companionship for Military Veteran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ociety & Animals*. 21(6): 568-581, 2013. \
52. Johnson RA, Albright DL, Marzolf JR, Bibbo JL, Yaglom HD, Crowder SM, Carlisle GK, Willard A, Russell CL, Grindler K, Osterlind S, Wassman M, Harms N. Effects of therapeutic horseback riding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military veterans“. *Military Medical Research*. 5(1): 3. 2018.
53. Voelpel P, Escallier L, Fullerton J, Abitbol L. Interaction Between Veterans and Horses: Perceptions of Benefits.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56(5): 710, 2018.
54. Lanning BA, Krenek N. Guest Editorial: Examining effects of equine-assisted activities to help combat veterans improve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50(8): vii-xiii, 2013.
55. Paula Calvo, Joan R. Fortuny, Sergio Guzmán, et al. Animal Assisted Therapy (AAT) Program As a Useful Adjunct to Conventional Psychosocial Rehabilitation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Results of a Small-scal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ront Psychol*. 7: 631, 2016.
56. 신성자, 정숙희. 치료견 보조프로그램이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기능수준향상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0:85-112 (2000)
57. Marguerite E O’Haire, Noémie A Guérin, Alison C Kirkham. Animal-Assisted Intervention for Traum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Front Psychol*. 7;6:11-21, 2015.
58. Allie Phillips, J.D., and Diana McQuarrie. Therapy Animals Supporting Kids

- (TASK). Program manual of Delta Society and American Humane. 2008
59. Cheryl A Krause-Parello, Elsie E Gulick. Forensic Interviews for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An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Animal-Assisted Intervention on Stress Biomarkers. *J Child Sex Abus.* 24(8):873-886, 2015.
60. Tracy J Dietz 1, Diana Davis, Jacquelyn Pennings. Evaluating Animal-Assisted Therapy in Group Treatment for Child Sexual Abuse. *J Child Sex Abus.* 21(6): 665-83, 2012.
61. Meagan Kashty, ANIMAL PLANET' S "RESCUE DOG TO SUPER DOG" August, 17, 2020. <http://www.plimsollproductions.com/animal-planets-rescue-dog-super-dog/>
6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화정, 김경희, 김상진, 김민진, 최정애). 201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2019)

## 영문초록

### Necessity of introducing animal-assisted therapy in the fields of pediatric treatment in Korea

As the number of people suffering from loneliness increases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industry and aging of society, the demand for companion dogs, which have been closely connected with humans for a long time, is also increasing rapidly. In a fast-paced modern society, dogs are not pets, but family members. In addition to the pet function, these pet dogs can serve as supplementary ai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Recently, dog assisted therapy activit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domestic, and research on animal-assisted therapy activities and program effect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abroa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ositive effects of animal-assistant therapy(AAT) programs on humans. Although various attempts for AAT are being made in Korea utilizing the medium-sized dog, the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for AAT as a formal adjuvant therapy, and research has not been conducted on the application of assistance animals specialized to the disease field for human subjects.

To see the effect of animal-assisted therapy and decide its application fields in Korea, the effects of various trials on human subjects were analyzed. There were many studies applied AAT to a wide range of subjects, from child to elderly, such as dementia, autism, child abuse, learning difficulties, hearing loss, and visual acuity. Various types and methods of assistance animal



services for the difficult people were widely used and operated as a social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were very limited types of animal-assisted therapies using assistance dogs due to various restrictions, and the therapies were not universalized in the social system.

The reason for the low spread of domestic AAT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ignorance to the AAT of the medical community that holds the decision-making powers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human diseases, and second,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that does not select and implement promising beneficial treatment methods on the patient's side, third, the lack of trained animal-assisted therapists and trained high-quality assistance do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suade and promote the medical community so that the patient can be helped by AAT without unnecessary drug use and overcome the difficult diseases, end-of-life pain, and incapability of coordination. The first step will be to list AAT as one the medical items covered by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Key words:** Animal-mediated therapy, assistance dog, children, intractable diseases